

남다른 발상 - Derm'all Matrix 오피스 (2022.10)

업무 Office

남다른 발상

Derm'all Matrix 오피스

취재 원선영

Derm'all Matrix의 오피스는 서로 다른 성격의 공간들을 독립적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배치해 브랜드가 지향하는 목적성에 부합하는 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설계 / OUTINSPACE

시공 / OUTINSPACE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_송도 29층

면적 / 1006.6㎡

마감 / 천장-도장 | 벽체-도장, 패브릭, 멜라톤 패널, 타일 | 바닥-카펫 타일, 데코 타일, 타일

사진 / 김정규

최근 스킨케어 전문 화장품 브랜드 Derm' all Matrix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멤버십 전용 라운지와 업무 공간을 선보였다. 프로젝트를 담당한 OUTINSPACE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라운지에 자연스럽게 녹여내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하고 업무 공간 역시 더 나은 성과를 향해 나아가도록 'The Specialists of Biomaterials' 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살려 디자인했다. 특히 라운지는 빈티지 무드를 재현한 서가 공간과 다양한 클래스가 열리는 바 공간을 마련해 브랜드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고 직원들의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낼 업무 공간은 투명한 벽체로 감싼 오픈 스페이스에 포인트가 될 만한 장식적 요소를 더해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돋보이는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Derm' all Matrix의 오피스는 멤버십 라운지를 거쳐 업무 공간에 진입하는 구조이다. 라운지 출입구는 오피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앤틱 가구숍의 외관처럼 어닝과 쇼윈도를 만들었다. 네이비 컬러의 어닝으로 차분함을 더하고 쇼윈도 안은 클래식 가구와 소품들로 세련되게 연출해 앞으로 펼쳐질 공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높였다. 음각으로 멋을 낸 우드 도어를 열고 들어서면 송도의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멤버십 라운지 The MORE가 펼쳐진다. 브랜드가 발행하는 계간 매거진을 토대로 콘셉추얼하게 꾸며 놓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책과 음악, 다양한 체험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누리게 된다. 라운지는 책을 읽을 수 있는 서가 공간과 바 공간으로 나뉘는데 영국 서점 Maison Assouline의 영감을 받은 서가 공간은 벽 전면이 책장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북카페를 연상시킨다. 중간에 놓인 키 작은 책장은 파티션 역할을 겸하며 자연스럽게 옆 테이블의 시선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책을 전면으로 배치해 공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또한 창가에는 아이보리 컬러의 라운드 소파와 스탠딩 조명, 포근한 러그를 매치해 프라이빗한 기분이 드는 편안한 심을 유도했다. 바 공간은 서가보다 톤 다운된 월넛 컬러의 키친과 바 테이블이 무게감을 더한다. 바 테이블에서 불빛이 새어 나와 감성적인 분위기를 이어가며 천장에서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이 화려한 인상을 자아낸다. 바닥에는 패턴이 강렬한 타일로 영역을 분리해 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색다른 기분을 자아내 인상적이다.





브랜드의 스토리를 엿볼 수 있었던 라운지를 뒤로 하고 긴 복도를 지나면 직원들의 업무 공간이 펼쳐진다. 큰 창을 통해 스며드는 자연광이 공간을 감싸며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형태로 배치한 워크스테이션은 유연한 사고를 추구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회의실, 임원실, 휴게 공간 등을 기능에 따라 구획했는데, 유연한 조직 문화를 표현하듯 유리 벽체를 사용해 개방감을 부여했다. 업무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USM 가구를 파티션으로 활용하며 수납 기능까지 만족시켰으며, 네이비와 화이트 컬러로 차분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또한 탕비실은 슬라이딩 도어 안쪽에 콤팩트하게 구성하고, 한쪽에는 캐비닛을 뒤 직원들의 편의성까지 높였다. 소회의실은 직원들이 마음 편히 드나들도록 파티션 없이 구획된 공간이다. 감각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러그 위에 화이트 테이블과 민트 체어가 회사 분위기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포인트가 될만한 식물과 조명을 곳곳에 배치해 미묘함을 덜어냈다. 협업이나 외부 고객 미팅이 이루어지는 대회의실 역시 긴 테이블을 놓고 반구 형태의 펜던트 조명을 설치해 공간에 다채로움을 더했다.





COPYRIGHT 2022. INTERNI&Decor ALL RIGHTS RESERVED.

[인테리어앤데코 - www.internidecor.com 저작권법에 의거, 모든 콘텐츠의 무단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